

알찬 결실 거두는 釜山총회 되도록



大韓病院協會 부산지부장 金 炳 洙

지금은 만물이 생동감에 넘치는 계절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많은 병원협회 여러회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이곳 港都 釜山에서 갖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오며 이곳 부산지부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다함께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되고 나서 병원이 설립된지도 1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선진국에 버금 갈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그나마 현재까지 많은 개선을 보아 왔읍니다만, 아직도 저희들 병원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병원협회가 맡고 있는 책임이 막중함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협회가 창설이래로 현재까지 전국의 병원 수가 무려 4백98개로 늘어나 있으며 앞으로 계속 회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병원협회가 출범이후 오늘의 모임이 지방인 釜山에서 처음 갖는 뜻깊은 정기총회인 만큼 훌륭하고 알찬 결실을 얻음으로 해서 병원협회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아시아병원연맹 회원국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 기회에 釜山의 風物과 人情을 함께 맛보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환영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 5월 1일